

아시아경제

"시진핑 내년 방한 시, 한중 관계 사드사태 이전 회복 기대"

기사입력 2020-12-28 06:00

전경련, 2021 中경제 전망조사

< 2010~20년 방한 중국인 추이 >

(단위: 천명)

중 국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.10월
입국자	1,875	2,220	2,836	4,326	6,126	5,984	8,067	4,169	4,789	6,023	669

* 출처 :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

* '15년 중국인 관광객 한국 내 평균 여행경비(261만원)는 미국인의 2배, 일본인의 3배

[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년 방한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(對)중국 활동이 사드(THAAD·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)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'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·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'를 조사한 결과 사드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될 경우 양국관계는 104 가량 회복·상승이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.

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 해제 등 한중 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 및 중국 내수가 회복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는 사드사태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. 앞서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유·무형의 제재 조치를 시행, 같은 해 800만 명 수준의 방한 인구가 2017년 400만 명으로 급감했다.

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7.8%로 올해 보다 5.6%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. 특히 올해 저성장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은 2013년 이후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. 국제통화기금(IMF)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.2%로 전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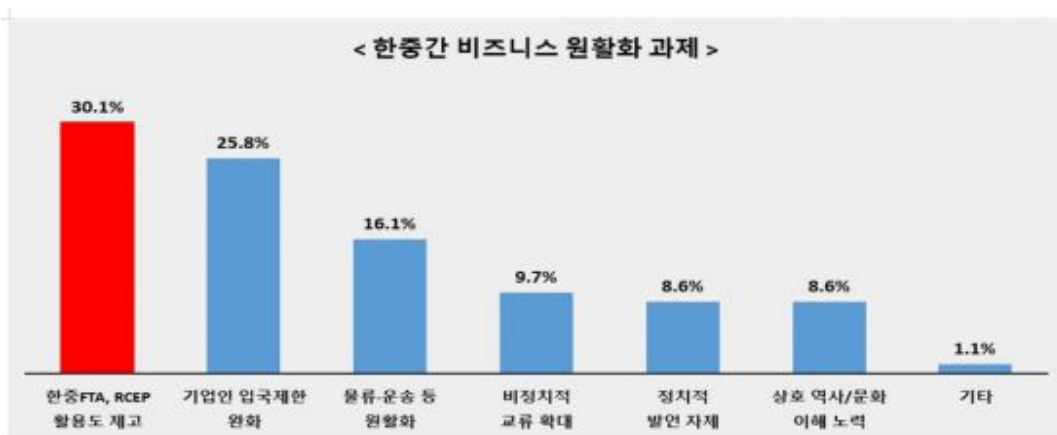


한국의 내년 대중 수출 증가율 또한 8.1%로 최근 2년 간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했다. 올해 10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으로 전년 동기대비 3.7% 감소했다. 다만 이는 같은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(-8.2%)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.

내년 미국 신(新)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(51.6%)이 심화(12.9%)될 수 있다는 응답보다 4배 가량 높았다. 전경련은 미중 간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.

전문가들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한중 '패스트 트랙' 보완 과제로 '방역절차 편리화(38.7%)', '적용지역 확대(25.8%)', '원스톱 창구 마련(19.4%)', '항공편 운항 증대(16.1%)' 등을 꼽았다.

원활한 한중 비즈니스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'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활용도 제고(30.1%)', '기업인 입국제한 완화(25.8%)', '물류·운송 등의 원활화(16.1%)' 등 순으로 응답했다. 지난달 15일 체결된 RCEP 등 다자·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.



전문가들은 내년 대규모 투자가 전망되는 중국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인공지능(20.7%), 데이터센터(19.6%), 산업인터넷(18.5%), 5G(17.4%) 순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. 중국은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, 내수부양,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(약

1700조원)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
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"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8%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"며 "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동우 기자 dwlee@asiae.co.kr

- ▶ 2021년 신축년(辛丑年)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?
- ▶ 발 빠른 최신 뉴스,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
- ▶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'드링킷'

<©경제를 보는 눈,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>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277&aid=0004817962>
